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시편 133:1)

제1회

평화통일학교

2021. 6.6(주일) ~ 27(주일)



기 독 교
대한감리회

안성제일교회

목차

CONTENTS



- 01 초청의 글
- 02 평화통일학교일정
- 03 1강
통일선교의 비전 – 하충엽 교수
하나님이 행하시는 북한회복 역사:
흑암을 빛으로(Turning Darkness from Light)
- 09 2강
남북 화해와 평화 – 전순영 박사
한국전쟁의 기억과 성찰, 나아가 남북화해를 이루는 성경적 기억법 모색
- 21 3강
북한사회와 주체사상 이해 – 김병로 교수
북한사회의 이해와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의 흐름 이해
- 33 4강
금요기도회 설교 및 특강 – 이승열 목사
섬김의 신앙과 평화통일선교
- 37 5강
통일선교의 사명 – 강디모데 전도사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방향성

“세상적 당위성을 넘어, 하나님의 평화의 부름으로”

먼저, 제1회 평화통일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교회는 전쟁발발의 해인 1950년 9월에 안성의 한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아마도 전쟁이 벌어진 이 땅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전쟁은 휴전이 되었고, 휴전으로 인한 분단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1950년 그 해, 9월에 세워진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71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하나를 다시 잡습니다.
그것은 전쟁발발의 해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계속해서 꿈꾸며 노력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찾고, 말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평화의 부름에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는 평화통일을 꿈꾸며 기도해야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배우고, 서로를 향해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할 때,
이 굳건한 분단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넘어,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평화통일을 꿈꾸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학교를 여는 것입니다.

평화.
이것은 주님이 이루실 평화입니다.
주님께 배우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비폭력적이고, 적극적인 평화입니다.
이는 정치적 이념을 넘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우선적 가치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통일.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준비하고 살아내야 하는 실천적 방향입니다.
또한 성경적 통일관을 가지고자 합니다.

학교.
이를 위해 배우고, 행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각자의 영역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선교적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성제일교회 평화통일학교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의 사도로 부름 받아,
분단을 향해 복음으로 외치고 기도하며, 행하는 일꾼을 세워가는 꿈이요, 실천입니다.

우리의 배움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평화통일을 이루고 사는 때에도 계속 이어지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평화통일학교를 통해, 남북의 분단을 넘어, 온 열방을 향한 평화공동체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평화통일의 일꾼입니다.

제1회 평화통일학교를 열며 담임목사 이선진

제1회
평화통일학교
일정

1강

2021.6.6(주일) 오후 4시

통일선교의 비전 - 하충엽 교수
하나님이 행하시는 북한회복 역사:
흑암을 빛으로(Turning Darkness from Light)

2강

2021.6.13(주일) 오후 4시

남북 화해와 평화 - 전순영 박사
한국전쟁의 기억과 성찰,
나아가 남북화해를 이루는 성경적 기억법 모색

3강

2021.6.20(주일) 오후 4시

북한사회와 주체사상 이해 - 김병로 교수
북한사회의 이해와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의 흐름 이해

4강

2021.6.25(금)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설교 및 특강 - 이승열 목사
섬김의 신앙과 평화통일선교

5강

2021.6.27(주일) 오후 4시

통일선교의 사명 - 강디모데 전도사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방향성

1강

통일선교의 비전 - 하충엽 교수

하나님이 행하시는 북한회복 역사:

흑암을 빛으로(Turning Darkness from Light)

하나님께서서는 북한 회복을 위해서 “틈”을 만드시고 “빛”을 들여 보내신다. 북한선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성도가 깨닫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선교신학 (Th.M 수료)
-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신학석사 (M.Th., 북한선교학)
-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철학박사 (Ph.D., 통일신학)
- 영락교회 선교전담,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북한선교학)
- 현)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통일지도자학 석·박사 학위과정 주임교수
- 현)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장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시18:28)

“You, O LORD, keep my lamp burning; my God turns my darkness into light.”

들어가면서

빛은 모든 생명의 기본 전제입니다. 창세기1장 3절에서는 해가 창조되기 전 (창1:16)에, 그 해와는 상관없이 빛이 나타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해는 곧 생명력(욥33:28; 시27:1; 36:9; 사9:2)입니다. 유대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을 순수하고 신성한 빛의 존재를 말합니다. 이 빛은 천상계와 지상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힘이 존재하게 만듭니다. 이 빛의 유출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명의 과정이며 이 덕분에 모든 피조물의 존재가 유지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요1;4;7;93:19;20)라고 증언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라(마5:16)고 하셨습니다. 안성제일감리교회 성도분들께서 북한 사람들 앞에서 빛을 발하는 사역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본 론

시편18;28은 하나님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입니다. 본 성경 구절 중에서 “흑암을 밝히시리이다”(Turning Darkness from Light)는 말씀의 어구는 아일랜드공화국(Republic of Ireland) 수도인 더블린(Dublin)에 트리니티 컬리지(The University of Dublin Trinity College) 안에 켈스의 책(The Book of Kells)이 보관되어있는 건물에 걸려 있다. 아일랜드 선교는 패트릭(Patrick, 385-462) 선교사로, 스코틀랜드 아이오나(Iona) 공동체 형성은 콜롬바(St. Columba, 521-597) 수도사로 대표됩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은 수도사들이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4복음서 성서본을 그리고 라틴어로 필사했습니다. 그들은 3가지 순교 영성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그리

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며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Red martyrdom)입니다. 둘째는 회개의식으로 금욕과 고행에 참여하는 녹색 순교(Green martyrdom)입니다. 셋째는 자기비움(kenosis)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몇 년씩 소중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백색순교(White martyrdom)입니다.

“흑암을 밝히시리이다”(Turning Darkness from Light)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4 복음서의 말씀이 돈(money), 성(sex), 힘(power)을 추구하는 어두운 인성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의 인성으로 바뀌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인성을 지닌 사람이 우상을 섬기던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를 믿는 밝은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 수도사들은 켈트 십자가(Celtic Cross)를 상징적으로 고백적으로 전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원은 태양을 우상으로 숭배하던 옛 켈트 제의인 태양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태양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징표를 상징합니다. 즉, 이것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흑암으로부터 빛으로 밝혀 주셨습니다.

유럽 오스트리아(Austria) 비엔나(Wien)에 가면 유대박물관이 있고 그 2층에는 유대신학 자료를 모아둔 곳이 있습니다. 그 현관에 적혀있는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물에는 틈이 있고 그것은 거룩한 빛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나타낸다(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that's the light gets in)는 것입니다. 어떤 암반이라도 틈(a crack)이 생기면 어두웠던 그곳에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보존이 일어납니다. 북한은 종교말살정책(1955-1972)으로 북한성도들을 순교자가 되게 했습니다. 수령론 중심의 주체사상을 강화하고 북한 도시조차도 대대적으로 수령중심의 도시로 재개발했습니다. 수령은 신이 되었고 무오와 전능을 만들기 위해 탄생설화가 혁명사적관에 가장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어둠의 땅이 되었습니다. 남한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학자는 이러한 북한은 붕괴될 것이라고 두 번 예측했으나 빗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묘하게도 북한 땅에는 고난의 행군(1995-1998)이라는 비극이 발생했고 그 비극은 북한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틈을 만들었습니다.

그 고난의 행군은 북한 땅에서 3백만 명의 아사자들이 발생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압록강 두만강에는 참담한 시체들이 떠내려오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강을 건너 온 사람 중에 그들 자신은 그 당시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극의 강을 건너는 이들 중에 어두운 북한을 밝힐 빛의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들 중에는 어두운 북한 땅을 복음의 빛을 밝힐 빛의 용사들입니다. 마치 어린

사내아이들이 죽어 나가던 비극의 나인 강을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밝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과 같습니다. 비극의 시기에 모세라는 빛의 아들이 바로 궁전에 들어간 사건 자체가 유대신학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궁전에 틈(a crack)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은 그 강을 건너는 순간 탈북민이라는 이름이 생깁니다(re-naming). 탈북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re-creating). 그리고 그들은 항상 북한 땅을 향하여 사역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어두운 북한 땅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turning darkness into light). 이들에게는 빛의 사자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탈북민은 중국 땅에서 살아가며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제2세대들이 이젠 대학생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중국 여권을 가지고 어머니 고국인 북한 땅에 들어가서 두 날개를 펴고 복음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며 이들과 함께 행진해 주실 안성 제일감리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3만 3천명의 탈북민은 남한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탈북민이 남한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필요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재복 가족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남한 사람들 사이에서 취업도 힘들고 취업을 해도 직장 안에서 적응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하는 것을 참기 힘듭니다. 더 어려운 것은 남한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차별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남한 사람들 자신이 탈북민을 차별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를 못하면서 차별을 하는 것은 탈북민에게 남한 땅에서 숨쉬기 힘들게 합니다. 탈북민은 남한 사람들과 경쟁하기에는 너무나 늦게 출발한 불공평을 느껴야만 하는 것은 고스란히 탈북민들만의 짐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탈북민에게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돈, 성 그리고 힘을 추구하게 합니다. 이것은 남한 사회의 어두운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결국 더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3만 3천명의 탈북민 중에 그리스도인이 세워졌고 신학생들과 목회자가 된 사람은 200명이 되어갑니다. 그들이 모인 북한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북기총 표기)는 탈북민을 흑암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하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의 모임입니다. 북기총 회원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회하는 탈북민 성도들이 흑암의 북한 땅에 있는 재복가족, 친지, 그리고 동포를 빛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중국 땅에서 어두운 불행한 삶을 사는 동포를 밝

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북기총 회원은 남한 땅에서 어두운 사회에 있는 탈북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현재 남한에는 탈북민을 목회하기 위해 세워진 56개의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북기총 회원은 오늘 본문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어”(You, O LORD, keep my lamp burning)입니다. 이들을 존중하며 이들과 겸허히 동행해 주실 안성제일감리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남과 북한 사람이 아닌 외국인 그리스도인(Global Christians)이 2000년부터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 땅으로 들어가 ngo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7개 나라로부터 ngo사역자로 파송을 받아 북한 땅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간 그들은 북한 땅을 딛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MA, PhD)에는 그들을 교육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학 온라인 과정이 곧 개설되어서 한인들과 현지인들을 북한선교 교육을 받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릴 것이며, 이는 북한 땅 내지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ngo사역자를 동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북한을 밝히며 북한 땅 위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빛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집니다(re-making). 결론은 하나님은 북한 땅을 구원하시고 북한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한순간도 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쉬시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그 일을 섭리하십니다. 어두운 북한 땅에 가서 ngo사역자로 살아가는 빛의 사역자들이 무수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면서:

북한을 향한 복음의 빛의 시대로부터 북한을 통한 세계를 향한 선교의 시대

고난의 행군기간에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온 탈북민이, 건너간 외국인들이 빛의 사자가 되어 국내외 북한 동포에게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어 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나아가 하나님께서 통일 후에 북한 성도들이 역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열방을 향하여 빛의 복음을 증거하는 빛의 용사들이 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수주의 선교는 북한 안으로 빛을 비추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주의적 선교는 북한으로부터 세계선교를 향하여 뻗어 나가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일과 북한선교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통일국가의 교회를 통하여 세계선교를 이루시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특별히 통일국가의 북한 성도들은 세계 57개 이슬람 국가들을 복음화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병이 될 것입니다.

2강

남북 화해와 평화 - 전순영 박사

한국전쟁의 기억과 성찰,
나아가 남북화해를 이루는 성경적 기억법 모색

한반도 대립과 갈등의 뿌리가 되는 한국전쟁의 기억을 성찰하고 남북화해를 이루는 성경적 기억법을 모색한다.

- 연세대학교 졸업
- 2020년 송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졸업
“한국전쟁 기억의 화해적 재구성 연구-미로슬라브 볼프의 기억담론을 중심으로”
- 송실평화통일연구원 보조연구원
- 현) 송실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전문연구위원
- 현)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교육팀장
- 저서: <화해 정의 연대: 인문학적 고찰>(공저), <남북의 통합과 인문적 시야>(공저)

기억과 화해

-한국교회 트라우마 기억의 치유-

[안성제일교회 평화통일학교] 특강

전 순 영
2021.6.13.

1



■ 강사 소개

- 연세대학교 졸업
- 2020년 숭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졸업
박사학위 논문 제목: “한국전쟁 기억의 화해적
재구성 연구—미로슬라브 볼프의 기억담론을
중심으로”
- 前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보조연구원
- 숭실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전문연구위원
-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교육팀장
- 저서: <화해 정의 연대: 인문학적 고찰>(공저)
<남북의 통합과 인문적 시야>(공저)

2

■ 강의 목차

1. 우리 사회의 트라우마
2. 한국전쟁의 기억
3. 기억의 충돌
4. 기억의 의미
5.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6. 기억의 화해 사례
7. 통일과 하나님 나라
8.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3

1. 우리 사회의 트라우마

- “트라우마 한국사회”: 한국인의 마음에는 불행한 역사적 경험으로 생긴 커다란 상처가 있음. 이것을 ‘집단 트라우마’라고 함.
- 일제강점과 분단, 전쟁을 통해 남과 북 양쪽 다 식민·분단·전쟁·이산 트라우마를 겪음.
- 분단된 한반도에서 극심한 이념갈등의 뿌리는 민족상잔의 역사적 비극 6.25전쟁.

4

2. 한국전쟁의 기억

- 군사적으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못한 채 고착.
- 남한에서는 친미·반공·반북주의로, 북한에서는 반미·반제·반기독교의 형태로 나타남.
- 공산치하의 핍박을 경험한 북한 교인들이 대거 월남(30만 중 10만)하여 형성된 남한 교회들은 체험적 반공주의를 표명하게 됨.
-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냉전이 끝났지만, 분단 상태의 한국은 여전히 이념전쟁중.

5

3. 기억의 충돌

- 북한은 미국이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하며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명명. 남한보다 인명손실이 커서 피해의식도 더 강력함. (예: 신천학살전시관)
- “오래 전부터 침략전쟁을 준비하여 온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놈들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였다. 미제가 조선전쟁을 일으킨 것은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뒤집어엎고 전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아시아 침략의 발판으로 만들며 나아가서는 세계를 먹으려는데 목적이 있었다.”(북한 중4 교과서)

6



4. 기억의 의미

- 기억은 곧 정체성과 동일함. 나에게 갖고 있는 기억이 곧 나 자신임. 올바른 기억=올바른 정체성.
- 과거의 기억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의미가 해석되지 않아서임. 우리에게 한국전쟁의 의미는 아직 해석되지 않았음.
- 기억은 역사적 사실보다 더 중요. 한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 어떤 의미로 과거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집단기억은 달라질 수 있음.
- 집단기억은 교육과 문화에 의해 형성됨. 따라서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중요함.

5.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 우리는 과거에 얽매어 살아서는 안되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함.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과거의 사건은 이미 일어났고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 사건을 다루고 대응하는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음.
-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함.
-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기억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응보적 정의를 넘어서, 가해자까지 회복시키시는 회복적 정의의 차원을 보여줌.

9

-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받음으로써 정의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가해자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는 것. 여기서 가해자는 인간이고 피해자는 하나님.
- 그런데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가해자를 기꺼이 포용하심. 자신이 희생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포용하심. 그토록 하나님은 인간과 화해하기 원하셨음.
- 따라서 용서와 화해는 고통스러운 악의 기억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롬 5:8)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막힌 담”(엡 2:14)을 허무셨음.

10

· 올바르게 기억하기

- (1) 진실하게 기억하기
- (2) 정의롭게 기억하기
- (3) 피해자가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억하기
- (4) 가해자가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기억하기
- (5)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위해 기억하기
- (6) 함께 살아갈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기억하기

11

6. 기억의 화해 사례

- **성경 사례:** 예수님의 사마리아 포용
- **개인 사례:** 손양원목사(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양아들로 삼음), 김명혁목사(단신월남 후 북한에 수감되었던 부친 피살, 성경말씀 순종하여 반북·반공의 증오 극복, 화해운동에 투신), 한경직목사(기독교인 박해 피해 월남, 반공주의를 고수했지만 북한돕기운동에 헌신), 김준곤목사(공산당에 의한 가족 피살, 반공주의를 고수했지만 사랑의 통일 역설하며 북한돕기운동에 헌신)

12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
니다.”

-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드린
손목사님의 감사기도 中



손양원 시신 앞에 선 유족과 양자 안재선(위 사진 오른쪽 두 번째). 아래 사
진은 손 목사 아들인 동인과 동신 사진.

- **지역 사례:** 제주도 하귀리의 집단 화해.
2003년 영모원 건립(4·3 희생자, 일제강점
기 독립운동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때
죽은 호국영령위령공원), 매년 유족회-경우
회 공동참배
- **국가 사례:** 남북전쟁 이후 화합 이룬 미국,
내전 이후 역사기억법 만든 스페인, 2차대
전 이후 독일-프랑스/독일-폴란드 공동 역
사교과서를 펴낸 독일과 유럽 국가들

7. 통일과 하나님 나라

- 통일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함.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교회와 하나님이시기 때문.
- 남과 북은 가인-아벨이 아니라, 야곱-에서, 요셉-형제들의 관점에서 화해를 바라볼 것을 권함.
- 전쟁통에 가족을 잃은 슬픔, 분단 때문에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이산의 슬픔은 남북 모두 마찬가지. 우리는 모두 냉전체제의 희생자.
-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웃과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됨.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됨.

15

8.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 교회가 현실 정치에 대한 가치 판단을 지양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 하나님 나라에 미치지 못한 남과 북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 교회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까지 용서하고 화해를 실천하는 참된 사랑으로 사회에 본이 되게 하소서.

16

감사합니다

3강

북한사회와 주체사상 이해 - 김병로 교수

북한사회의 이해와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의 흐름 이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짚어보고 지난 70년간 형성되어 온 북한사회의 기본구조를 간략히 설명한 후, 최근 20년 동안 시장화로 어떻게 변화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
- 제22대 북한연구학회장
-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 KBS 자문위원
- 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남서울교회 장로

안성제일교회 강의

북한사회와 주체사상 이해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순서

1. 북한이해를 어렵게하는 현실
2. 조선으로 북한읽기
3. 8차 당대회 이후 변화
4. 북한국제화 - 북한변화를 위한 대북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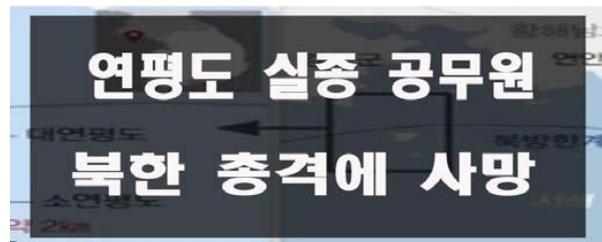
1. 북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현실: (1) 두려움



1. 북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현실: (2) 분노와 증오



금강산 관광객 피살
 (2008.7.11)



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
 (2020.6.16)



- 김여정 3월 15일, “3년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 오기 어려울 것이다”(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컴퓨터시뮬레이션 진행에 대해)
- “태생적인 바보라고 해야 할지...”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금강산국제관광국, 북남군사분야합의서 등 정리 및 폐기 가능성 → 분노
- 북한 외무성 5월 2일, “미국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데 대하여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바이든 행정부가 인권문제를 제기한데 대하여)

북한의 실체는 무엇인가?

인권유린과 독재
빈곤



사람 사는 곳
자주, 자존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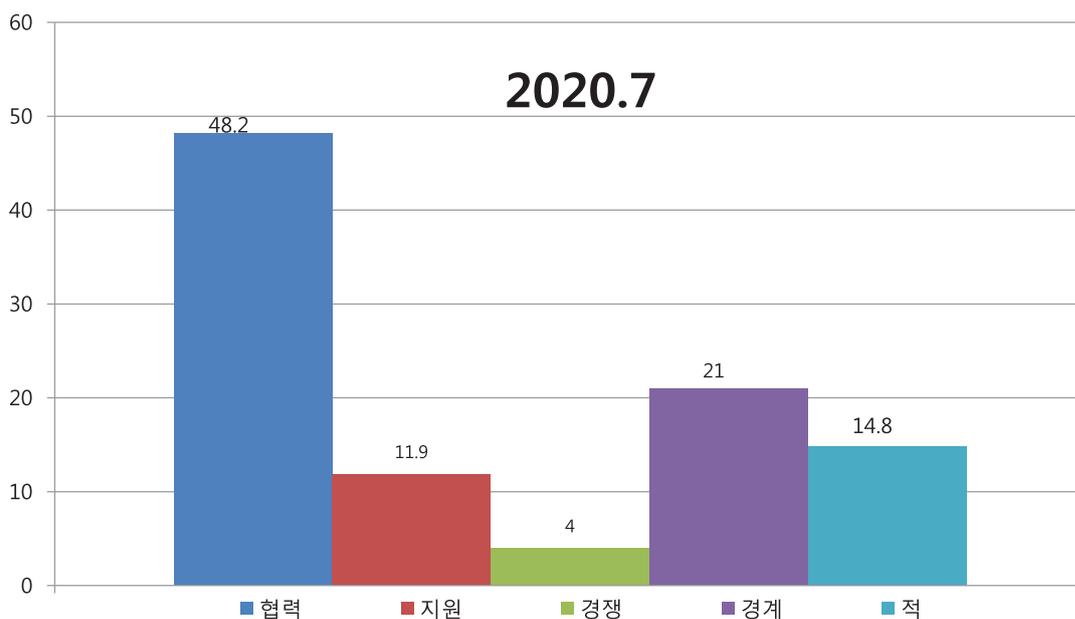
2020.10.10 당창건 열병식 김정은 연설



- 장병들..그래서 너무도 미안하고 이 영광의 밤에 그들모두와 함께 있지 못하는것이 마음이 아픕니다...마음속고백, 마음속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그래서 사실 년초부터 세계적 인 보건위기가 도래하고 주변상황도 좋지 않아 고민도, 두려움도 컸습니다...아직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제가** 전체 인민의 신임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받들어 이 나라를 이끄는 중책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솔직, 인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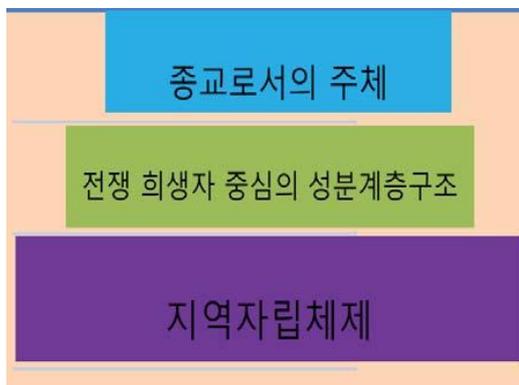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적, 경계, 경쟁, 지원, 협력



2. 조선으로 북한 읽기

- “있는 그대로의 북한”
 - Jurgen Habermas, 의사소통행위 Communicative Action
 - Max Weber, 가치중립 Value-Free
- 국가적 실체 인정, 두 국가론(분단국)
- 과학적, 경험적 분석에 기초한 북한 이해
- 통합적 이해 societal system
- 비교사회주의를 넘어 한국(남한)과의 비교 시각



시장화에 의한 사회변화

- 종합시장 486개 (2002년 7.1조치 이후)



- 핸드폰 500만대, 서비차 등 교통수단 발달
 → 지역간 이동 및 유통 증대
- 상인계급 140만 형성, 기존 상류층과 갈등

종교화한 주체사상

영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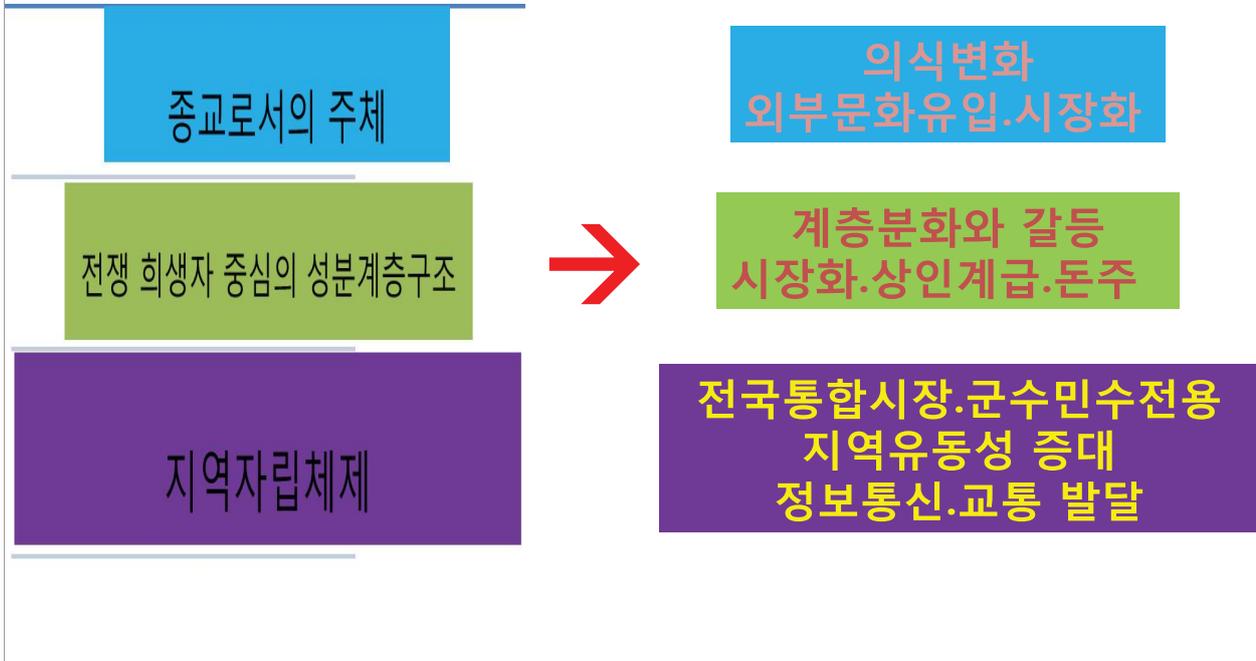
- 사회정치적생명체론
- 믿음과 사랑, 은혜, 영생
- 10대원칙, 생활총화, 수요강연회, 아침독보회, 새벽참배
-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 10만곳



주체사상 내면화 실태



조선(북한)의 사회 변화



3. 8차 당대회 이후 변화

8차 당대회(2021.1)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제거





평양 순안국제공항



8차 당대회 이후 변화

- '사회주의 정상국가화' '사회주의 연대 '
- 극단적 형태로 치닫는 '주체' →국제기준에 맞게 보편적 형태로 변화
- 불량국가→사회주의 정상국가(normal state) 지향
- 선군비상체제→당-국가체제
- 비서국 체제, 총비서
- 인터내셔널가(The Internationale)
-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2021.4.29)

4. 북한국제화 – 북한변화를 위한 대북정책

- 북한 정상국가화를 촉진하는 북한국제화 적극 추진, Globalize North Korea
 - 국제사회 동등한 일원으로 북한이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 북한 외교정상화(북미,북일수교)
- 관료,기업인,학자,스포츠,예술 국제교류 지원
- 북한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지식협력사업 (KSP) 추진

- 기독교 국제기구, GHNI, GILPP
- 남북한 동시 수교국 (158국), 공공외교
 - 교수(아디스아바바대학)
- 북한선교를 준비하는 세계각국 기독교인, 선교사 (러시아, 호주, 루마니아, 독일, 영국, 스웨덴)
- 대북 교류 및 국제협력 증진, 온라인 화상 교류
- 동북아 공동 교육제도 창설 (안중근)

• 질의 응답 및 토론

4강

금요기도회 설교 및 특강 - 이승열 목사

섬김의 신앙과 평화통일선교

한국교회는 서양의 선교사들의 디아코니아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하였다. 한국교회는 보수적 복음주의(근본주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바 있다. 그 영향으로 사회참여, 사회책임, 사회봉사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소홀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인데 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남북한 평화통일선교는 동서독의 통일의 예와 같이 디아코니아 차원과 관점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학박사(Dr. Theol. 디아코니아 전공, 독일 하이델베르그대학)
- 대치동교회 위임목사, 독일 하이델베르그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사무총장, 한국디아코니아신학회 회장
- 감리교태화복지재단 사외이사
- 현)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연구소장, 한국교회디아코니아아카데미 원장
- 현) 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 화해통일위원회

5강

통일선교의 사명 - 강디모데 전도사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방향성

하나님은 한반도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어둠을 뚫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에 비추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둠의 북한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졸업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M.Div) 졸업
- 현) 송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석사 재학중
- 현) 소망교회 북방선교부 전도사
- 현) 엔케이피플선교회 대표
- 현)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 연어의 꿈 저자

통일선교의 부르심과 방향성

강디모데

[소망교회] 북방선교 전임전도사

[엔케이피플 선교회] 대표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언어의꿈] 저자

목차

1.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사
2. 통일선교의 당위성
3. 통일선교 사역과 방향성

1.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사

“내가 얼마나 북한을 사랑하는지 아니?
저들은 저주 받아야 할 대상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 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1.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사

한반도의 복음의 씨앗



1.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사

1907년 평양 대부흥



▲ 길선주 목사



▲ 평양 장대현교회에 모인 성도들

1.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사

절대군주제, 김일성주의 종교국가



장대재 언덕 위에 세워진 김일성 · 김정일 동상

1.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사

북한의 종교 - 대외 선전용



칠골교회



봉수교회

1.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사

북한의 종교 - 세계기독교 탄압 1위



정치범수용소 내부모습



총살모습

1.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시라 1995-1997 고난의 행군



생존을 위해 대량탈북 (중국15만명, 한국3만명)

2. 통일선교의 당위성

성경적 근거

1)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28:18-20)

2)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 (엡1: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1:10)

3)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 (롬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롬5:1)

1. 정부와 주민
2. 평양과 지방
3.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4. 북한주민과 탈북민

3. 통일선교 사역과 방향성

- 북한 인구: 2551만 3000명 (2019.7.11. 미국통계국)
- 중국 탈북민 인구: 15만-30만 추정
- 국내 탈북민 인구: 33022명 (2019.6.통일부)

3. 통일선교 사역과 방향성

북한 내 사역

대상: 북한주민

사역: NGO 구제사역

중국 내 북한사역

대상: 제3국 출생자녀, 탈북여성, 탈북남성

사역: 구제, 복음전도, 양육, 탈북구출

국내 북한사역

대상: 탈북민,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사역: 탈북민정착, 복음전도, 탈북민양육

3. 통일선교 사역과 방향성

북한 내 사역

공식: 북한 당국과의 비즈니스, 구조지원

비공식: 지하교회 지원, 탈북구출, 가족에게 돈 보내기

중국 내 북한사역

공식: 중국(러시아)파견노동자

비공식: 중국인 결혼가정, 노동현장, 쉼터, 산속

국내 북한사역

공식: 개성공단 비즈니스, 대한적십자사 구조지원.

비공식: 국정원, 하나원, 학교(대안학교, 대학교), 회사, 교회, 하나센터(25개)

3. 통일선교 사역과 방향성

하나님이 보내신 탈북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 45: 7-8)

3. 통일선교 사역과 방향성

전문인 선교사 '사람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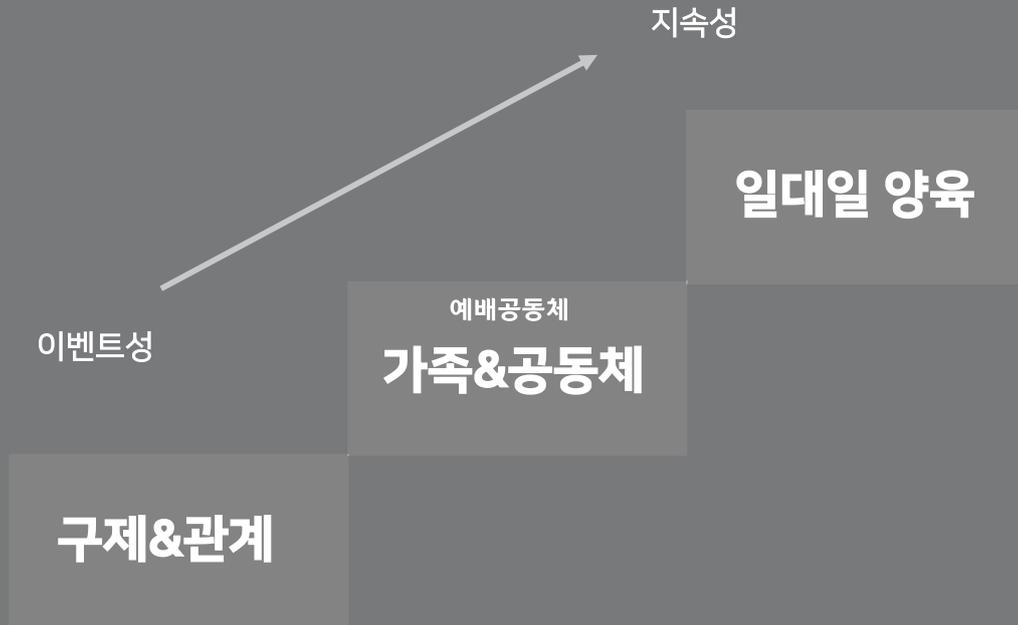
신앙



전문성

신앙, 정체성, 자립, 공동체

3. 통일선교 사역과 방향성



3. 통일선교 사역과 방향성

한국교회는 어떻게?

1. 준비 (타자를 이해 하기 위한 교육과 준비)

- 1) 통일선교부서, 통일선교 기도모임 설립.
- 2) 북한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해
- 3) 통일선교를 위한 증보팀
- 4) 북중접경지역, DMZ, 탈북민교회 등 탐방

2.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맺기)

- 1) 하나원, 하나센터, 탈북민교회, 북한선교단체 등.
- 2) 일대일로 관계 맺고 친구, 가족이 되어주기
- 3) 가정방문, 가정초대 등을 통해 꾸준한 관계 맺기

3. 공동체 (신앙의 삶으로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

- 1) 부서, 기도모임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
- 2) 개인 관계적 꾸준한 보살핌 (교육, 상담, 장학, 정보)
- 3) 6개월에서 1년정도 교회출석 후 일대일 양육
- 4)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제자양육 후 파송

3. 통일선교 사역과 방향성



엔케이피플 선교회

탈북구출, 중국 쉼터 지원사역
세명의 선교사 파송 및 지원 사역
탈북청년 '예수제자' 일대일 제자양육
탈북대학(원)생 장학지원



미래소망스쿨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기숙형 방과후 학교
탈북청소년 수요일 예배
탈북청소년 목요일 성경공부
탈북청소년 주일예배 및 오후활동 프로그램

3. 통일선교 사역과 방향성

100여명의 탈북민 목회자. 50여명의 신학생. 33개의 탈북민
개척교회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탈북민 교회 및 한국교회 연합사역
북한(지역, 지하)교회 선교사 및 교회 재건 준비
탈북신학생 및 다음세대 리더십 준비
탈북민 양육교재 및 제자양육

1. 고난의 행군 - 북한선교의 빛
2. 중국의 탈북 난민과 아이들 - 제2의 모세
3. 한국의 탈북민들 - 제2의 요셉
4. 북한 기독교 박해 - 지하 교인을 통한 세계선교
5. 전세계 기독교 박해와 복음전파 -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MEMO

MEMO

